

Jean-Marie Klinkenberg

벨기에 리에쥬(Liège)대학 교수로서 로만스어 문헌학을 중심으로 문학과 어학 일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를 연구, 강의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동대학의 <퀘벡연구소> 연구부장과 프랑스 파리의 <현대 불어 Le Français>誌 연구부장 및 라투스출판사 불어 및 불언어학 관계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Rétorique générale*(1970), *Rétorique de la poésie*(1977), *La Littérature française de Belgique*(1980) 등이 있으며 연구논문으로는 *Français parlé et en sémiotique*(1967), *De la stylistique à la poétique*(1975), *Le Chagrin des Belges: un stimulant pour la littérature francophone*(1989) 등 250여편이 있다.

프랑스 밖의 불어

장-마리 콜랭켄베르그

제가 오늘 학생들만을 상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아마도 그들에게 그들의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언어로서 불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프랑스의 언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틀린 생각입니다. 단 하나의 불어(le français)란 존재하지 않으며, 아마도 한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복수의 불어, 복수의 한국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담배가게 주인에게 말하는 방식과 그들의 선생에게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방금 충돌사고를 낸 운전수와 법무부 장관이 경찰관에게 말하는 방식이 결코 서로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의 언어들이 존재하며 불어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모든 언어가 다 그렇듯이 불어는 네 개의 축을 따라서 변화합니다. 먼저 지리적 축에 따라서 모든 언어는 공간적 편차를 보여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축에 따라 언어는 변화합니다. 물론 매우 빨리 변화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20년 전에 불어를 배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수많은 단어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2차 대전 전에는 'c'est bath'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20년대 소설에서 위의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c'est chouette' 또는 'c'est épatant'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가 'c'est épatant'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가 아주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전 만 해도 'c'est bien'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c'est génial'이라고 말합니다. 10 여년 전 만 해도 'c'est génial'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좋다는 의미로는 'c'est génial'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c'est nul'이라고 말합니다. 'nul' 또는 'génial', 여러분이 오늘의 불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바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말한 바대로 언어는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저마다의 독특한 환경(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registre' 라고 부릅니다)에 따라서도 역시 언어는 변화합니다. 저는 언어들이 공간에 따라 변한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두번째 거짓말을 불러일으킵니다. 불어는 프랑스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는 모국어가 불어가 아닌 사람이 아마도 수백만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여러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스크어에서부터 브르타뉴어까지, 그중에는 알사스어, 플랑드르어도 있습니다. 오크어라고 불리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 프랑스 남부 지역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특히 불어는 프랑스의 언어인 것만은 아닙니다. 불어는 전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단일하지 않은 복수의 불어가 쓰여지는 세계 여러 지역 사이에 어떤 구분을 지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일련의 동심원들의 한 가운데 첫번째 동심원에 위치시킬 수 있고, 두번째 동심원에는 불어가 전통적으로 있었던 나라, 즉 불어가 프랑스에서와 동시에 생겨난 나라들인 프랑스와 인접한 나라들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는 스위스의 일부 지역,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벨기에의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유럽 대륙의 정상인 몽블랑의 발치에 있는 발다오스트(Val d'aoste)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아주 작은 지역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은 모국어가 불어의 모체와 흡사한 일종의 방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들에서도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어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어로 쓰여진 최초의 공식문서(여기서 나는 문학작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12세기에 오늘날 프랑스 지역이 아닌 벨기에의 작은 도시에서 쓰여졌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두번째 동심원에는 프랑스와 인접한, 전통적으로 프랑스적인 특성을 지닌 나라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번째 동심원에는 역시 전통적으로 프랑스적인 특성을 지닌 나라들, 즉 프랑스와 인접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의 문명이 발전될 때부터 불어가 가장 우세한 언어로 쓰여진 나라들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아메리카 대륙의 불어권 지역, 즉 캐나다의 큰 주인 퀘벡 주와 미국의 한 주인 루이지아나입니다. 루이지아나에는 한때 불어가 정착되었다가 오늘날에는 불어를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도 있습니다. 제가 '전

통적으로 프랑스적인 특성을 지닌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문명의 초창기부터 불어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불어의 경우도 다른 언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을 축출하였기 때문에 불어가 원주민들의 언어에 대체되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언어는 영어이고 약간의 인디언들만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디언들에 대한 일종의 종족학살이 있었던 것입니다. 캐나다의 프랑스화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프랑스, 전통적으로 프랑스적 특성을 지닌 인접한 나라들, 그리고 인접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프랑스적 특성을 지닌 나라들 이외에도 네번째 동심원에, 전통적으로는 아니지만 프랑스적 특성을 지닌 나라들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네번째 나라들에서 불어는 학습된 언어(*langue apprise*) 이고 중첩 언어(*langue de superposition*), 즉 공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언어입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일상 생활에서 제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언어는 다른 언어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물론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마그레브지역(Maghreb)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북부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와 그리고 또한 특히 검은 아프리카 국가들, 즉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오늘날의 자이레를 포함하여 옛날의 프랑스 식민지들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저는 우선 사하라 사막 이남의 검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한 특수한 경우 즉 지역언어가 곧 공용어인 루안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어가 단 하나의 공용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불어는 교육의 언어지요. 하지만 아직 그리 넓게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언어들도 그 지역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아프리카와 동부 아프리카에는 스와힐리어라는 중요한 아프리카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자이레 동부와 탄자니아에서도 사용되며, 언젠가는 아프리카의 중대한 국제어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진 않아서, 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의 식민지였는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가에 따라서 영어나 불어가 공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어가 이식된 이 모든 나라에 있어서 불어는 분명히 매우 판이한 상황들 속에 처해 있습니다. 내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도처에서 말해지는 것은 같은 불어가 아니며, 그것은 같은 억양으로 말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언제나 같은 구문으로, 같은 어휘로 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내적 기술에 있어서 동일한 불어가 아니며, 또한 불어는 동일한 상황,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동일한 대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언어를 말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무언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나라 벨기에에는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데, 두 언어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독일에 인접한 플랑드르어 사용지역이 있고 남부의 불어 사용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예를 하나 들지요. 플랑드르어 사용지역의 상류사회에서는, 상류 부르조아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나라의 북부에서는 오랫동안 불어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 그땐 그랬으니까요. 집에서는 불어를 말하고 애들은 불어 학교에 보냈거든요. 상류사회에서 그들끼리는 불어를 썼지요. 다만 하인들에게는 플랑드르어를 사용했습니다. - 불어를 말한다라는 것은 사회의 상류에, 그 정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영어와 불어의 두 언어가 상존하는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어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회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어만을 사용하는 퀘벡 주 내부에서조차, 주민들의 수입을 비교해 볼 때, 불어지역에 살면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주민이 영어를 배워서 2개 언어를 사용하는 불어사용자보다도 일반적으로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캐나다에서는 사회적으로 하류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언어라 하더라도 대서양의 이쪽이나 저쪽이나에 따라 사회적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서로 다른 동심원들을 제시한 것은 불어의 질 뿐만 아니라 상황도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불어는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불어사용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불어가 모든 다른 언어처럼 내가지 차원, 즉 시간적, 지리적, 사회적 차원과 화용론적 차원 즉 상황의 차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체로 문법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불어의 변천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예전에는 두 개의 격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것이며 그것은 인정될 것입니다. 화용론적 변화도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registres'라고 부르며, 때로는 언어의 층위라고도 부르지만, 특히 'registres'라고 하지요. 반면에 다른 두 변화는 흔히 숨겨져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나 지리적 변화에 대해서는 불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구요? 제 생각으로는 프랑스에서는 특히 이러한 지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말이지 영어를 조금만 공부하면 거의 어디서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며, 결코 아무도 당신의 영어에 대해 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영국식 액센트로 말하면, 사람들은 “아, 영국식 액센트로군요”라고 말할 것이며, 영국에 가서 미국식 액센트를 사용해도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붙어는 극도로 중앙집권적인 언어라서 여러분은 붙어가 까다로운 언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옳습니다. 그것은 붙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들 (francophones)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구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를 불신하도록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형적으로 발달된 문법적 초자아(surmoi grammatical)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라면 용인가능한 단순한 변화가 붙어에서는 실수 아니 심지어는 과오로 취급됩니다. 과오란 단어는 문법적 실수인 동시에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도덕적인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붙어화자(francophone)라면 누구에게나 일종의 문법적인 초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붙어는 표준화(standardisation)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언어들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주 일찍이 17세기부터, 아니 본질적으로는 12세기부터 다양한 지역적 방언들의 상위에 있는 언어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될, 후에 붙어가 될 이 언어는 아주 일찍부터 많은 방언들을 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어서, 특히 프랑스의 북부와 우리나라 벨기에에서는 방언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예컨대 저희 부친께서는 이 방언이 모국어이고 붙어는 국민학교에서만 배우셨습니다. 저는 붙어로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방언의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초지방적 언어가 제도에 힘입어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아주 강력하게 중앙집중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앙집중화는 강력한 교육적 전통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으며, 모든 프랑스인은 북부이건 남부이건 동일한 언어를 말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역적 방언들에 대해 담을 쌓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본래 프랑스 출신인 이웃이 한분 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중심부에 있는 오베르뉴(Auvergne) 출신입니다. 오베르뉴인들은 자주 “Oui, ils disent Fouchtra, ils shuintent les s...”라고 놀림을 당하지요. (오베르뉴인들의 ‘ch’를 자주 발음하는 습관을 놀리는 표현임. ‘fouchtra’는 ‘foutre’의 오베르뉴식 변형이며 ‘shuintent’는 ‘suinent’임. 구태어

번역하자면, “그래요, 그들은 ‘fouchtra’라고 말하지요. 그들은 ‘s’를 새나오게 한다니까요” - 편자주) 그 부인은 실제로 사투리 억양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녀의 집에 갔을 때 그녀의 아버지께서는 지독한 사투리 억양으로 말했었고, 구멍가게에서도 아주 강한 오베르뉴 사투리 억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저에게 맹세코 프랑스에서는 억양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남부나 북부나 똑같은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그녀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고 있는 벨기에에서는 몇몇 조그만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언어는 하나다라고 그녀를 설득시키는 교육적 전통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녀도 여러 분처럼 거짓말의 희생자가 된 셈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전통의 영향으로 그녀는 지역적 방언들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늘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불어에 있어서 다양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첫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중요한 요인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어의 경우에 국제적 확산이 유럽의 다른 중요한 언어들과는 아주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퍼진 다른 유럽 언어권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관계가 전도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지요. 영국이 영어의 요람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영어사용자가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분명히 영국은 아닙니다. 영국은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 전체 중에서 육분의 일 내지는 칠분의 일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의 세력 중심은 북아메리카로 옮겨진 것입니다. 스페인어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중심인 스페인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의 육분의 일 내지 칠분의 일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세번째로 국제화된 언어인 포르투갈어의 경우에는 불균형이 더욱더 현저합니다. 오늘날 포르투갈어의 중심지는 브라질이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어가 모국어인 집단의 십오분의 일 내지는 이십분의 일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인 불어에 있어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모국어로서 불어를 사용하는 사회 전체의 중심지는 양적인 관계에 있어서 오천 오백 만의 인구와 함께 주변 그룹에 비해 훨씬 우세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동심원들을 설명하면서 불어는 그것이 공용어 이지 모국어나 일상어는 아닌 나라들에 특히 확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어로서의 불어만을 생각하면 프랑스는 여전히 다른 그룹보다 우세한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중심이 없는 스페인어나 영어권과

는 달리, 오늘날에도 여전히 파리가 프랑스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불어 사용권 전체의 중심으로 남아 있게 하는 어떤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대형 출판사들이 스페인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현실적으로 영어사용권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지인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보다도 파리에 비길만한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형 출판사들이 모두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뉴욕에도, 워싱턴에도, 샌프란시스코에도 그리고 조그만 지방도시들에도 대형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파리가 불어사용권의 중심으로 남아 있으며, 심지어는 중심지가 파리 전체가 아니라 겨우 두개의 구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불어권의 중심은 센스강 좌안의 사방 약 일 킬로미터밖에 안되는 파리 제 5구와 6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출판사들이 집결되어 있으며,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판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를 들면 'Actes Sud' 총서를 출판하는 아를르(Arles)의 Hubert Nisseu같은 용감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방금 말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말 잘하는 사람은 파리에 밖에 없다"라는 옛 격언을 예증하기 위한 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파리는 불어권의 언어시장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요 사회적 동일화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고자 하는 물건들과 팔고자 하는 물건이 있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불어권의 언어 시장은 파리에 의해 계속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의 유명한 언어란 담당자 중 한 사람인, 르몽드 지에 글을 쓰는 작크 셀라르(Jacques Cellar)는 거의 150 개의 단어에 달하는 신어들을 모아 해설한 조그만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전 불어권에 확산될 가치가 있는 이제 막 생겨난 단어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 이와 같은 정리작업을 함으로써 사전보다 한발 앞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어들 중에서 'abribus'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는 프랑스에서 비를 피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abribus). 사실상 그 단어는 당시 확산되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그에 대한 벨기에 신문의 한 기사들이 있었으며 일부 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abribus'란 말이 무언가요? 우리에게는 예전부터 사용하는 'aubette'라는 똑같은 의미의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또한 몇몇 문헌학자들에 의해서도 알려지지 않았는가요. 왜 우리말인 'aubette'를 쓰지 않는거요? 우리가 그걸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셀라르씨 당신은

당신 책에 ‘abribus’를 등록했군요.” 셀라르도 ‘aubette’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었지만, ‘abribus’를 썼습니다. 어째서 일까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장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의 ‘aubette’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저도 ‘abribus’보다 ‘aubette’를 더 좋아하고, ‘abribus’는 좋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용어로서는 ‘aubette’는 결코 불어권에 뿌리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인도(人道)에 건설한 그 시설물의 이름이 ‘abribus’라고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용어로서 퍼져서 쓰이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셀라르씨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전차를, 오늘날에는 버스를 항상 ‘aubette’에서 기다렸다가 탑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벨기에에서도 ‘abribus’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아마도 ‘aubette’란 단어를 죽을 때까지 쓰겠지요. 그렇지만 저도 지나칠 정도로 습관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니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몇 년 후면 저도 ‘abribus’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시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 시장은 파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aubette’의 예는 그와 같은 많은 다른 것들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순수주의자들인 퀘벡 사람들은 상자에 넣어 파는 어떤 조개류를 ‘clams’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영어에서 온 단어인 ‘clams’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그 단어는 ‘mye’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단어를 기억하지는 마십시오. 저 역시도 ‘mye’라는 단어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가 사전들에 실려 있습니다. 진짜 그 단어는 ‘mye’이지만, 현재 파리에서 ‘clams’을 사용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로 ‘mye’는 결코 통용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불어권의 언어시장에서 ‘clams’이 계속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리적인 다양성이 억압되도록 만든 두 가지 요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번째 요인은 불어권 언어제도의 중앙집중 현상, 즉 제가 문법적 초자아라고 명명했던 것의 산물입니다. 제가 보다 유물론자라면, 불어권의 문명은 자신의 언어를 찬양하는 모든 일련의 장치들, 문법서들, 열 다섯 남짓한 모범적 언어, 학회 등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요인은 한마디로 문법적 의식의 중앙 집중 현상이고, 두번째 요인은 파리의 이러한 지배적 성격인데,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적 다양성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는 불어의 특성들,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을 묘사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두가지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두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서로 비슷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아주 상이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조국, 또한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한 Marie-José Bustenberg 한국외대 교수의 조국, 벨기에의 경우이며, 그리고 불어가 모국어인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입니다. 언어의 본질과 아울러 언어가 제기하는 사회언어학적 유형의 문제들에 관한 몇가지 자료들에 관해 언급할 것입니다. 먼저 저희 벨기에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의 국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니까 세 개의 국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독어 사용 인구는 양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이니까, 북부에서는 네델란드어(플랑드르어)를 사용하고 남부에서는 불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쪽의 네델란드와 남쪽의 프랑스 사이에 끼어있는 국토의 지리적 상황과 일치하는 셈입니다. 동쪽에는 독일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벨기에는, 한국의 경우처럼, 항상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 길을 찾아야만 했던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웃에 강대국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고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어려운 것인데 가끔 이 어려움이 역사에 의해 비극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쪽 저쪽의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로이고 요충지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약삭빠르기만 하면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조그만 나라라는 사실은 자주 지능을 개발시켜줍니다. 그래서 벨기에에는 언어가 분명하게 분리된 이중언어 국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언어가 분리되지 않은 몇몇 지역이 있고 바로 그런 지역에 벨기에의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지방 중에 큰 지방으로 브뤼셀이 있습니다. 브뤼셀은 처음에는 플랑드르어를 사용하는 마을이었다가 서울 만큼은 크지 않지만 상당히 큰 도시가 되었고 도시가 커지면서 불어 사용 도시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브뤼셀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어를 사용하는 엘도라도(eldorado, 꿈의 나라)인 반면에, 플랑드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플랑드르어를 사용하는 도시로 되돌아와야하는, 약간은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인 것입니다. 벨기에의 언어문제는 본질적으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남부의 불어 사용 지역인 발론 지방(Wal-lonie)은 어떨까요? 발론지방에서는 말씀드렸

들이 동등한 의미를 지닌 것들을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발론어의 'dje'가 불어의 'je'라는 소리에 해당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dju so'는 'je suis'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불어권 사람보다 더 쉽게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론어 접미사 '-et'는 불어의 접미사 '-eau'에 해당되기 때문에 'château'는 발론어로는 'chestet'가 됩니다. 그러면 발론어 'chapet'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chapeau'입니다. 자, 여러분은 발론어를 배웠습니다. 요컨대 이러한 방언이 아직도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서 친한 사이에서는 발론어 방언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게 여러분처럼 자기 나라에서 불어를 공부하는 남아메리카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 고향에 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라 축구 경기가 있었고, 축구 경기장이 멀지 않은데다가 그날 경기는 팀이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꽤 유명한 팀이어서 그 친구는 오자마자 만사 제쳐두고 추구장에 경기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죽어서 돌아 와서 하는 말이,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걸 보니 자신이 불어를 엉터리로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은 단지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발론어로 말했기 때문이죠. 그는 그래서 자기의 불어실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의 불어실력은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처음 만난 벨기에 사람들이 그에게 발론어로 얘기했던 것이지요. 발론어는 친한 사람들끼리 쓰는 언어라서 여러분이 벨기에에 가시더라도 그 말을 듣지 못할 것이고 특히 눈에 띄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글자로 씌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몇몇 시인들이 그말을 쓰기는 하죠. 그러나 그말은 길거리 안내판이나 광고에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발론어도 불어이기는 하지만 파리의 불어와는 여러가지로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벨기에에는 두 가지의 지방 불어가 있는데, 하나는 브뤼셀 지방 불어이고 다른 하나가 발론 지방불어입니다. 브뤼셀의 지방불어는 프랑스에 알려져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컨대 'Asterix chez les Belges' 같은 만화나 프랑스에서 들을 수 있는 벨기에의 이야기들 같은 데에서 희화화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특색이 있기 때문에 브뤼셀 지방불어인 것입니다. 브뤼셀의 불어는 플랑드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플랑드르어 단어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라는 뜻으로 'stasiver'라는 말이 쓰이는데 'siver'는 플랑드르어로 어느 정도 점잖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pei'라는 말도 늘상 쓰이는 말인데, 플랑드르어로 불어의 'un

type' 라는 뜻이며 'men'은 영어의 'man'처럼 사람(남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브뤼셀에 가시면 틀림없이 오줌을 누고 있는 꼬마 동상인 'manekenpice' 앞에서 꼼꼼히 생각에 잠기시게 될 것입니다. 'manekenpice'는 플랑드르어로 '오줌을 누는 꼬마'란 뜻이죠. 그 동상이 있는 분수는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브뤼셀에서 플랑드르어가 사용되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벨기에에는 브뤼셀 지방의 불어와 발론 지방의 불어가 존재하는데, 이 두 말은 몇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몇가지를 설명해 보죠. 여러가지 특징들 중에 두서너개 음성학적 특징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we/라는 발음이 있는데 "je suis dans la RUE"에서 'RUE'를 /Ry/로 발음하지 않고 /Rwe/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ye/라고 발음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il faut que j'aye lu cela"에서 'aye'의 발음이 그것입니다. 또 단어 마지막의 '-ée'를 흔히 /ye/로 발음하여 벨기에 특산 흰 치즈를 프랑스에서는 'maquée'라고 하는데 저는 'maquéeye'(단어 끝의 /ye/ 발음이 두드러지게 들리죠)라고 합니다. 그리고 벨기에의 불어에서는 유명한 / /과 / /의 구분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비음은 불어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죠. 포르투갈어에는 불어보다 비음이 세배나 많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 /, / / 등등의 비음을 익히기가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벨기에의 불어를 배우려면 좀더 어려울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사라진 / /과 / /의 대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조르즈 브라상스(Gerges Brassens)의 상송을 종종 들을 것입니다. 그는 'Pétain'(/pet /), Pétain 원수 말입니다. 과 'Verdun' (/v Rd /)의 각운을 맞추어 노래를 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 /과 / /운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구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기타 다른 비음화 현상도 프랑스에서와는 많이 다릅니다. 프랑스에서는 비모음화되지 않는 몇몇 모음들이 벨기에의 몇몇 지방에서는 비모음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벨기에에서는 'reine'를 /R n /라고 발음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좀 과장하자면 /r n /라고 발음하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음 'h'를 실제로 기식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음 h는 단순히 연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표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음 h를 기식음으로 발음합니다. 제가 "j'abats un arbre avec une hache"라고 말할 때 /h/음이 들릴 것입니다. 또 어떤 모음을 더 길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j'sais pas"라고

하는 반면에 벨기에에서는 "j'ne sais pas"라고 하며 'ai'를 좀 더 길게 소리내는 편입니다. 이상의 음성학적인 차이는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을 때 다른 나라에 있다는 실감을 에누리없이 보여주는 차이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통사론의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몇몇 표현 속에서나, 불어를 잘 알지 못하는, 방언에 아주 극히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불어에서만 가끔 통사적인 차이가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형용사를 앞에 위치시키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une robe noire'라고 말해야 할 것을 'une noire robe'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휘에 있어서는 일련의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서나 요리의 특성에서 어휘적 특성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구하게 예를 들지 않겠지만 'frite'가 벨기에의 특산 요리라고 하니 그에 관한 예만 하나 들지요. 벨기에에서는 'frite'를 파는 음식점을 프랑스에서처럼 'friteries'라고 하지 않고 'fritures'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벨기에에서 "friture"라는 말은 두가지 뜻, 아니 세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김용 기름'이나 '생선 튀김요리'라는 뜻 뿐만 아니라 'frites를 파는 음식점'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요리의 특성들과 더불어 적지 않은 일상생활의 특성들의 차이에서 오는 어휘의 차이도 있습니다. 벨기에인은 늘 청소를 한다고 이야기되는데, 그때 청소에 쓰이는 말 중 바닥을 쓸 때 사용하는 'la loque'나 'la loque à reloqueter'같은 특수한 단어들 있다는 사실이요, 'la femme à journée'가 가정주부의 동의어라는 사실 등을 의아스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각 국가마다 나름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벨기에에는 바라는 바가 저마다 다른 공동체들을 조정해야만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심지어는 거의 초현실적이기까지한 국가입니다. 벨기에에는 제도들이 아주 복잡한 나라지요. 그래서 거기에도 아주 특수한 어휘가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벨기에인만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플랑드르인과 발롱인이 일련의 일들을, 특히 교육에 관한 규칙을 결정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communautarisation'이라 부르는데, 교육을 communautariser했다는 말은, 매우 복잡한 말이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각 언어공동체, 각 언어집단에 교육에 대한 관할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단어가 결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communautariser, 프랑스에서 장관들끼리는 이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교육을 communautariser한다고 합니까? 이 말은 벨기에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벨기에를 여행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단어들이 몇몇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lycée'는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남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라틴어 'Athenaeum'에서 차용해 온 'Athénée'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독일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요. 시, 읍, 면의 장을 나타내는 말은 'maire'가 아니라 'bourgmestre'입니다. 문자 그대로 bourg(큰 마을, 읍)의 maître(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대학 등록금은 'minerval'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그에 대응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널리 알려진 몇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특히 또 숫자를 표현하는 말로 soixante-dix(70)은 'septante', quatre-vingt-dix(90)은 'nonante'라고 합니다. 이는 불어를 배울 때 좀 간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런지요. 분명 'cinquante, septante, quatre-vingt, nonante...'라고 하는 편이 쉽습니다. 그런데 벨기에에는 80을 나타내는 'octante'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밖에 무시할 수 없는 특성들 중의 하나가 식사 이름들입니다. 만약 언젠가 여러분이 벨기에에 가시게 되어 식사 초대를 받으시면 시간이 점심 때인지 저녁 때인지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벨기에에서는 아침이 'déjeuner'이고 점심은 'dîner'라고 하며 저녁은 'souper'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역지로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전히 일관된 일반적 규칙이 있는데, 'septante'나 'souper' 등은 그 일반적 규칙의 예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것은 한 언어에 변화의 요인이 있어서 변혁이 중심부에서 시작되면 그 변혁이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파장이 차츰차츰 연못가에 당도하듯이 점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서 중심부의 변화의 파장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변지역의 '에스런 말투(archaïsme)'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벨기에 도시 리에쥬 Liège는 파리까지 기차로 4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저는 기차를 타고 파리에 자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제가 서울 북쪽에 묶고 있는 곳에서 이곳 서울대학교까지 오는데 걸린 2시간 반보다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어쨌든 파리까지 가는데 4시간 걸립니다만 그래도 그곳은 주변지역인지라 습관이라는 것은 그리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상류사회에서, 여러분은 프랑스 상류사회의 불어를 배우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침식사였던 déjeuner를 11시 반경에 들 수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déjeuner가 점심이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dîner'라는 말이 'souper'라는 말을 밀어

내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souper'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바로 밤늦게 드는 식사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영화관에 가기 전에 식사를 하고 영화가 끝난 후 가벼운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바로 'souper'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기에에서는, 물론 거기에도 영화관이 있습니다만, 워낙(파리가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지방인지라 사람들은 여전히 정오에 'dîner'를 들고 저녁식사로 'souper'를 먹습니다. 프랑스의 시골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여행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농부들은 저처럼 'souper'가 저녁식사이며 파리 사람을 표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시골에서도 제가 말하는 'archaïsme'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제가 'pesées'라고 부르는, 잘 감지되지 않는 아주 작은 차이들을 통해서 특히 그러한 다양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종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낱말이 둘 혹은 셋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선택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지칭하는 약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je regarde la télé"와 "je regarde la TV"가 그것인데, 프랑스에서 전자처럼 말하고 벨기에에서는 후자처럼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랑스 사람은 몹시 더워서 땀이 날 때 'suer' 동사를 사용하는 편인데, 저는 'transpirer'를 사용합니다. 프랑스에서 이 두 동사가 둘 다 사용되고 동의어이긴 하지만 제가 'pesées'라고 말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년이 되었을 때 한쪽은 'pension'을 받는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retraite'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경우 역시 그런 종류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첫째, 지방 불어는 브뤼셀의 불어가 그러하듯이 인접하고 있는 언어들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로 지방 불어는 일반적으로 예스러운 말투를 간직한 불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septante', 'dîner', / 와 / /의 음성학적 구분의 유지 등이 바로 예스러운 말투(archaïsme)에 속하는 것이죠. 앞의 설명으로부터 세번째로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여러 다양한 차이들의 산출과 교육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차이와 사회적 차이 사이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약간 정신나갔다고, 아주 속물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Tu viens déjeuner chez moi"라는 말에 항상 'à midi'를 덧붙여 "Tu viens déjeuner chez moi à midi"라고 말하든가 오류를 피한답시고 "Tu viens déjeuner chez moi à midi?"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아 이구 속물짓 좀 그만하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적 특수성의 산출과 사회적 차이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부연컨대 지방불

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중앙의 불어와 똑같아지려고 하는 수동적 언어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파리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벨기에인은 프랑스의 모든 방송과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방송까지 케이블을 통한 텔레비전 전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에 방송으로 항상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은 'TV', 'bourgmestre', 'dîner'라고 하는 데 비해, 프랑스에서는 'télé', 'maire', 'déjeuner'라고 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당히 폭넓은 수동적 언어능력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활짝 편 부채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많은 벨기에인들은, 어쩌면 파리사람들보다는 더 자유롭게, 그들의 불어 내부에서 미세한 변화를 실행할 수(제가 '실행한다'라고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지적을 퀘벡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벨기에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사회 언어학적인 유형에 속하는 또 다른 중요한 현상에 대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프랑스인이 아닌 불어 사용자가 더 넓은 변화의 폭 위에서 움직일 수 있으며 자기 언어의 내부를 보다 쉽게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야, 그거 그럴 듯한데, 프랑스인이 아닌 불어사용자에게 우위를 두는 거잖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 외의 불어권에 우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달리 말씀드려야 할 어떤 것, 이러한 우위에 너그러워 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이 프랑스 외의 불어권에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언어의 불안정성'이라고 부를까 합니다. 앞에서 저는 불어 사용자는 아주 발전된 형태의 문법적 초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이외의 주변적 불어권에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불어)이 서툴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말이 서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발론어로 말하며 놀고 있으면 학교의 일하는 아줌마께서 나보다도 발론어는 더 잘하고 불어는 잘 못하면서 "발론어를 쓰면 못써"라고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모름지기 그러한 특정한 지역 방언을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벨기에는 순수주의의 국가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많은 순수주의의 문법책들이 벨기에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통적인 문법책인 'Le Bon Usage'의 저자 그레비스(Grevisse)도 벨기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Léon Warnan(/vaRna/이라고 발음하지요)의 방대한

발음 사전을 이용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벨기에인입니다. 오랫동안 철자법 챔피언전은 일종의 그나라의 올림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새 베르나르 피보(Bernard Pivot)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철자법 챔피언전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받아쓰기를 하러 등록비를 내고, 물론 등록비 이외에도 드는 돈이 많죠. 이러한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확대하는 마조키스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벨기에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생겨난 순수주의에 대한 염려가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말이 어설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고, 게다가 그 바람에 스스로 조심하느라 어쩌면 말이 더욱 서들러지는 것입니다. 말이 서들다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정상적인 첫 번째 반응은 항상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니까요. 불어권 지역의 어린이들 중에는 말을 더듬거나 실어증인 아이들이 많은데, 아마도 말이 서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벨기에에는 언어의 불안정성에 대한 일종의 보상 작용으로 순수주의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보다는 강하지 않고 드물게 쓰이는 구어(verbal)와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말(parole)의 중요성을 보고는 항상 놀랍니다. 제가 참석했던 국제 기호학 학술 발표 대회가 기억나는데, 어떤 프랑스 학자가 발표에서 말을 쓰지 않는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불명하자 어떤 미국학자가 '불어는 너무 말이 중심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전혀 놀랄 것이 없다고 그 프랑스 학자에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놀랄 정도로 말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리에 가보셨다면 지하철 표를 사면서 조그만 창구가 있고 'Parlez dans l'hygiaphone'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조그만 창구 즉 'hygiaphone(위생 창구)'는 손님의 침이 사무원의 얼굴에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hygiaphone'를 통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길 바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Parlez dans l'hysiaphone', 아마도 이것은 프랑스의 문화에서 구어의 우위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확실히 프랑스 이외의 모든 불어권에서는 구어와의 관련이 덜할 것입니다. 다시 벨기에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런 언어의 불안정성이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불안정성을 피하는 두 가지 방식 말입니다. 먼저 문법, 즉 순수주의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조심하는 것입니다. "아! 저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마다 항상 문법책과 사전을 찾아볼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작가들 중 가장 고전적인 불어 사용 작가들은 대개 벨기에인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잊혀졌지만 십여년 전에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출판된 소설로 공꾸르상을 받은 작가가 있었는데, 그 작품을 읽었을 때 저는 그때 그 작가가 생-시몽처럼 글을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가는 18세기 때처럼 부드럽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긴 문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것은 벨기에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언어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시겠지만 저는 말이 서투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잘못을 몽땅 얼버무리고 거기에 온갖 종류의 것들도 끼워넣지요. 그러면 남들이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들 만들어내고 새로운 통사적 표현법을 사용하는 바로크적인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벨기에 문학이 그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아마 가장 알려진 작가는 19세기의 에밀 베르아에랑(Emile Verhaeren)일텐데, 그는 그 당시 유럽에 굉장히 알려졌으며 엄청난 부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가는, 베르아에랑씨가 언젠가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부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스 메테르링크(Maurice Meterlinck, Materlink라고도 하지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도 있지요. 그는 1904년인가 노벨상을 받았지요 아마, 샤를 드 코스텔(Charles de Costel)같이 그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더 오래된 다른 작가들은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예스러운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또 오늘날 노르쥬(Norge)라는 이름의 나이 많은 시인은 대중가요와 비슷한 시들을 미묘한 통사법으로 쓰는데 때로는 말라르메의 시와 상당히 비슷하기도 합니다. 요컨대 언어에 대한 노력, 언어적 발명은 때로는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벨기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니 퀘벡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퀘벡에 대해 잠시 언급하지요. 퀘벡에는 불어가 식민지화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퀘벡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중간에 퀘벡이 프랑스에 의해 포기되고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를 이루는 모든 북아메리카 지역처럼 영국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어는 농부들에게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퀘벡인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영어사용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스런 표현들이 많이 잔존하게 되어, 퀘벡인들도 벨기에인들처럼 점심에는 'dîner'를 사용하고 저녁식사는 'soup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몬트리올 대학의 구

내 식당에서 “mais, posez votre assiette sur le ‘cabaret’”라고 하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plateau’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cabaret’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저희 집에서 어머님께서 ‘plateau’ 대신 늘 ‘cabaret’라는 말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전에도 그말이 벨기에의 몇몇 가정에서나 남아있는 고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만이 그것을 ‘cabaret’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말이 몬트리올 대학에서도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퀘벡에는 많은 고어와 영어식 표현(anglicismes)이, 엄청난 양의 영어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영어가 불어식으로 변한 것들입니다. 예컨대 땅콩을 나타내는 영어의 ‘peanut’에서 온 ‘pinotte’라든가 강낭콩을 나타내는 영어의 ‘bean’에서 온 ‘binne’ 등, 이루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영어식 표현이 퀘벡 지방의 말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자동차에 관한 영어식 표현을 온전히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mettez votre char là-bas’라고 그럽니다. ‘char’는 고어식 표현이죠. ‘on va checker vos breaks’라고도 합니다. ‘checker’는 어미가 -er로 끝나니까 불어동사긴 하지요. 하지만 분명히 영어단어입니다. 영어의 ‘to check’는 검사한다는 뜻이죠. 불어로는 ‘vérifier’라는 말이 있습니다. ‘breaks’도 그렇죠. 불어로는 분명 ‘freins’인데 ‘breaks’라고 합니다. 언젠가 제 동료가 퀘벡에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어느 공항이나 그렇듯이 검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이 뾰족한 가위를 지니고 있었는데 저처럼 강원원고를 자르고 짜맞출 작업을 기내에서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것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걱정말라고 당신께 그것을 ‘mailer’하겠다고 하더랍니다. ‘mélér’한다는 건지 ‘mélanger’한다는 건지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당신께 그것을 보내주겠다(envoyer par poste)라는 말이래요. 영어의 ‘to mail’에서 ‘mailer’가 나온거죠. 요컨대 앵글로 색슨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케이블 회로를 통해서 불어 텔레비전 전파보다 더 많은 미국 텔레비전의 전파를 받고 있으니 일종의 삼투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매우 독특한 억양이 있는데, 벨기에에서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퀘벡 전문가로서 퀘벡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은 택시를 타고서 운전수가 불어로 말하는지 영어로 말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보니 불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의 말을 못알아듣는다는 눈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이삼십 초를 음음하며 머뭇거린 적이 있습

니다. 결국 퀘벡 지방에는 일부는 벨기에의 경우와 동일한 사회언어학적인 영향으로 인한 수많은 독특한 표현들이 존재하며, 한편으로는 벨기에와는 전혀 다른 대응으로 인해 생긴 언어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퀘벡 지방은 오늘날 진정으로 적절한 언어 정책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불어 사용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어화 정책도 그와 관련된 것인데 요새는 자동차 정비소에 'break'는 'frein'으로 쓰라는 따위의 책자가 배포되고, 도로 안내판 등에도 불어화 정책이 시행되어, 오늘날 여러분이 몬트리올을 걸어다니다보면 영어를 거의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불어를 사용하는 도시에 와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몬트리올에는 영어 사용자가 많으니까 완전한 불어사용 도시는 아닙니다. 제가 십오년 전 쯤에 처음으로 몬트리올에 갔을 때는 아직까지 도처에 영어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중언어 사용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프랑스 도시에 와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 와있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커다란 대형승용차나, 전기제품 등,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불어를 사용하는 도시에 와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퀘벡인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자율권을 갖고 있었기에 오늘날 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 평방 킬로미터 밖에 안되는 파리의 중심부에서 언어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할 지를 결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십년 전부터 이 지방에서는 성의 평등이 아주 진전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언젠가 퀘벡에서 문법책을 하나 출간하시게 된다면 남성의 예와 동일한 수의 여성의 예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벨기에와 캐나다 출판사 공동 출간으로 책을 한권 출판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출판사는 'Science pour l'homme'라는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는 'Science pour l'homme'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t pour les femmes?'라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표지에 'Science pour l'homme'라고 적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 비평에서 글을 쓴 사람이 여성이라면 끝에 'e'를 붙여서 'l'auteure'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l'autrice' 혹은 'l'auteresse' 혹은 'la femme-auteur' 등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불어에서 직업명의 여성화는 아주 난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퀘벡 사람들은 그 문제를 파리가 결정해 주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추세에 따라 'l'auteure'

라고 부름으로써 해결한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퀘벡 지방의 발전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퀘벡은 아메리카, 부유한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퀘벡은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콤플렉스를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가로놓인 대서양이 그 콤플렉스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벨기에에서 하는 식으로 자기들의 문학을 퀘벡의 불어 문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불어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퀘벡의 예가 불어권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의 결론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어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불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전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어권은 오랫동안 파리식 기준을 갖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사정이 조금은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국주의적 불어권이 언어적 식민지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은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유럽 문화권이 아닌 국가들에서는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불어는 여러가지 이유로 수많은 유럽인들과 아메리카인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인들의 공동의 재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자기 민족중심주의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어는 이제 불어권의 다른 민족들의 일상생활, 지리, 전통 및 사회조직과 관련된 단어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표현 방법을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미래에는 이러한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즉 완전한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이용해야 할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입장이 언어의 통일성, 즉 여기서는 불어의 통일성에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저에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언어의 통제주의를 통해서 불어를 단일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여러 언어공동체들이 자신들의 내부로 몸을 웅크린 채 자립적으로 살고 있는 이상은, 언어의 다양성들의 분산이 더욱 강조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화가 서로 교류되고 있어 문화 간의 대립적 차이가 희미해져 가는 역사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움직임이 어쨌든 세계 속에서 문화적 통일의 형태로 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차원에서 대립적 차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위협을 모면하기 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은 해가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변화가 아주 순간적인 변화라도 보장되어 있듯이 그들의 언어적 변화도 역시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